

## 서울로가 궁금하신가요?

서울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서울로 7017은 왜 만들어졌나요?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서울의 첫 얼굴이자 산업 근대화의 상징적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교량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성 평가 D등급에 따라 조기철거를 검토하였으나, 고가도로를 녹색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7017은 ‘지우고 새로 짓는’ 전면 철거의 시대를 넘어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도시 재생사업을 본격화하고, ‘차량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보행친화 공간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서울로 7017이 만들어졌습니다.

### 서울로 7017은 왜 바닥이 콘크리트인가요?

서울로 7017이 고가도로였던 원형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고, 주변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며 식재된 식물의 색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디자인 콘셉트입니다. 서울로 7017의 소재, 색상 등의 디자인은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디자이너(MVRDV, Winy Maas)와 국내 여러 전문가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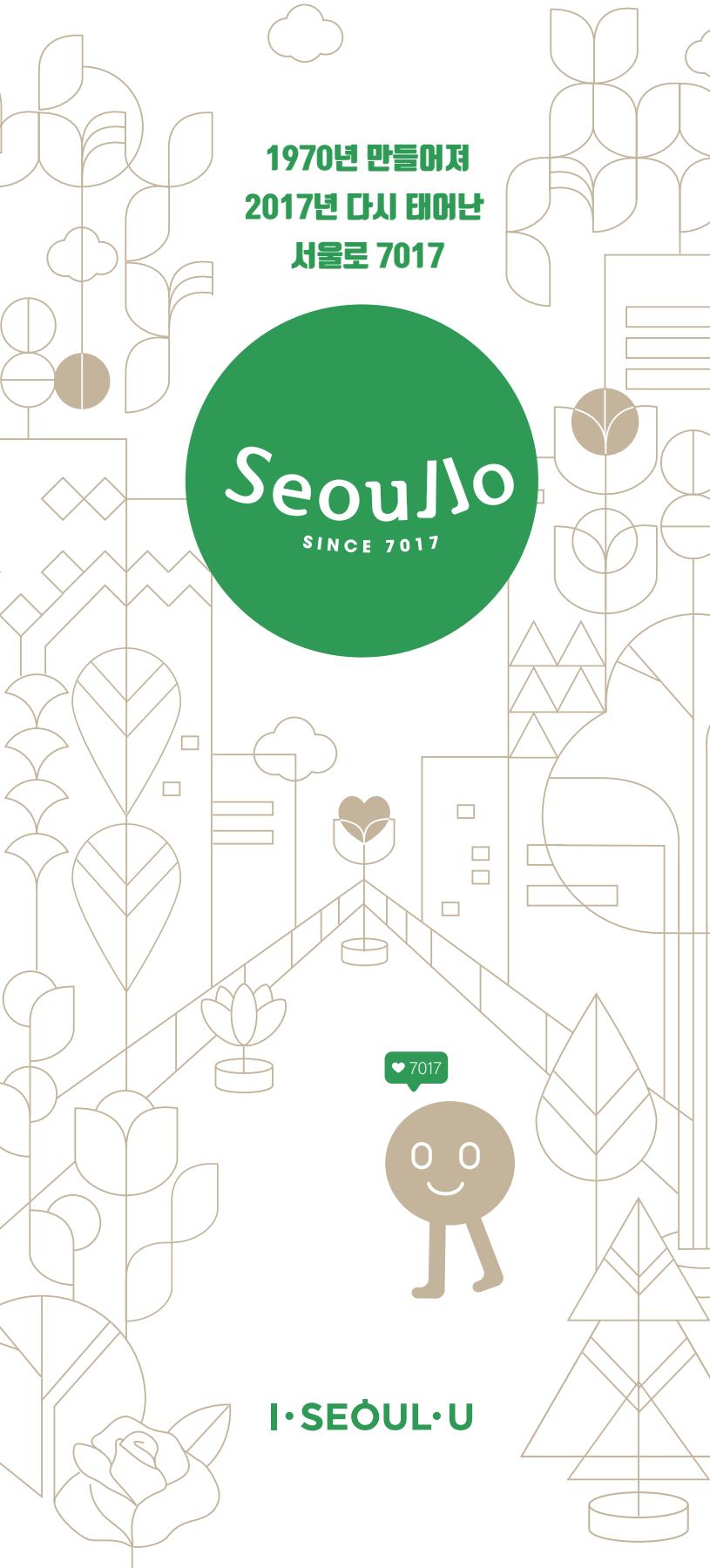
### 서울로 7017에 식물들이 많은데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서울로 7017에는 인공지반에서 생육이 가능한 서울·중부지역 수종 50과 287종을 선정하여 식물 ‘과’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여느 식물원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어, 도심 한복판의 살아있는 식물도감으로서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로 정원사들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폭염, 혹한, 장마 등을 이겨내면서 높은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서울로 7017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단절됐던 두 지역인 동쪽의 회현동과 남대문시장, 서쪽의 서계청파, 중림만리 지역을 사람길로 다시 잇는 ‘보행전용도로’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비교하여 ‘고가공원’이라는 관점에서만 평가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보행전용도로’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서울로 7017은 단순히 서울의 새 명소 탄생의 차원을 넘어 길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인식 전환의 상징적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SeouJyo  
SINCE 2017



## HISTORY

서울역 고가의 새이름 서울로 7017

산업 근대화의 상징물인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3월 퇴계로에서 동자동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1975년 만리재에서 퇴계로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서울역 고가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방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대면하게 되는 서울의 첫 얼굴이자, 상징적 구조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년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이후 활용 여부를 고민해 오다 2014년 보행자 전용 도로로 재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비니 마스(Winy Maas)의 설계안이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5월 20일 17개의 사람길로 연결되는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수목원이란 콘셉트로 만들어진 서울로 7017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닌 주변의 다른 길들과 연결되기를 바랐으며, 비니 마스(Winy Maas)는 방사형 보행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도시재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7017은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연결길로서의 역할을 꿈꿉니다.



서울역고가  
1970

